



손에 손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관심 지방선거 후보들만의 리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
민주당 독주... 맥빠진 선거
역대 최저 투표를 우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 예정돼 있고, 투표일 다음날은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등 대형 이슈에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공지지를 속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 같은 민주당 우세 분위기 속에서 맥빠진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맞선 야당도 뚜렷한 선거 이슈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들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보다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집중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선거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선거율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독주와 5·18민주화운동,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등 연이은 '빅 이벤트'에 선거 열기가 식고 있는 탓이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농·산·어촌이 많은 전

남은 제1회 76.1%를 시작으로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 등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높다.

이처럼 역대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다소 투표율이 낮다. 광역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시장·군수, 지역 의회 의원과 교육감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대선과 총선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특히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유권자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속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공약·정책 선거보다는 당내 경선에 집중하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야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은 최근에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선정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전반에 후보 난을 겪고 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상징적인 광역단체장 후보와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방의회에만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한 정당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하고 광주시장 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논의를 하는 등 일부 야당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너무 소극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광주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시 40%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영화같은 기념식’ ... 광주를 위로하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 5·18 단체장, 유족,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7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의 참여 속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대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50분간 진행됐다. 5·18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김꽃비와 김채희

이총리 “광주는 승리했다 ... 책임자, 진실의 심판 피하지 못해”

외국인 의인 유족들도 참석 ... 희생자 추모·유가족들 위로

문대통령 메시지 “5·18 계엄군 여성 성폭력 조사단 꾸릴 것”

씨가 기념식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5·18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재현했고 행방불명된 이창현(당시 7세)군과

창현군을 찾아 해맨 아버지 귀복씨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외국인 의인들의 유족들도 기념식에 함께 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독일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씨, 5·18 당시 광주 기록병원 원목으로 지난해 타계한 찰스 베크 한들리 목사의 부인 마사 한들리씨,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씨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이날 배포한 메시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성폭행

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 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피해자 한분 한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월 광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 한미정상회담...비핵화·북미관계 개선 논의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訪美) 길에 오른다.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급변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방미 일정의 핵심은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이다. 시간은 30여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

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모델,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주어질 보상, 전반적인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정보다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다.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방문 준비에 집중했다. 이날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전화 통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양 정상은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반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북한의 '여러 반응'은 남북 고위급회담의 무기 연기,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메시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기자 명단 미접수 등이다. 한미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내달 12일 북

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표발점검 - 화순·구례 ▶5면
KIA, SK에 3연승 신바람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광주의 수돗물,
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행정 1급수의 상수원
동북호(자체상수원), 주암호 물을 원수로 사용합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철저한 수질관리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17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현장 수질검사
수돗물 검사결과를 당일 현장에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